

‘적반하장’ 학교·가해학생 태도에 “가슴 미어진다”



(4) 피해가족, 마르지 않는 눈물

10개월 전 중학생 손자가 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남긴 말은 “죄송합니다”였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손자가 오죽했으면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했을 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25일 또래 아이 폭력에 시달리다

학교 축소·은폐 급급

‘힘없는 학생’ 상처만 더해

교육당국 학폭근절 대책도

진정한 반성 없인 ‘무용지물’

10개월째 학업을 짐작 중단한 광주 A 중학교 B(15)군의 할머니(73)는 손자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떨렸다.

이들에게 지난 10개월은 악몽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초 일어났다. B군은 교내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마주 오던 동급생 C군과 부딪쳤다.

B군은 C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C군에게 괴롭힘을 당

해왔다는 게 B군 진술이다. 당시 B군은 폭행을 당하면서 한 대로 덜 맞기 위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B군은 대학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병원에선 자살 충동이 심각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B군의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졌다. 지난해 초까지 서울에서 아들 내·외와 살던 할머니는 가정 형편때문에 B군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온 뒤 당한 일이라 아픔은 더욱 커졌다.

해당 학교의 안일한 태도에 할머니는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머니는 가해학생을 같은 반에서 분리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피해 학생은 학업을 짐작 중단한 상태지만, 가해 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해자는 상

쳐가 아물지 않아 하루 하루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셈이다.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자신의 아들도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광주 한 초교 6년 D(12)군도 지난해 3월 초 등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 D군은 ‘00초교 전파’라는 놀림까지 받게 되면서 반에서 왕따가 됐다. 이 과정에서 D군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감금까지 당했다.

D군의 어머니(45)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 학교 측은 D군이 이 학교로 전학 오기 전 다니던 학교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D군의 학교생활을 물기도 했다는 게 어머니의 주장이다.

D군의 어머니는 “가장 분한 것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

라며 “학교폭력에 적극 나서 해결해 줘야 할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학교폭력은 절대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 등의 없이 전화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교사·학생을 위한 매뉴얼도 배포했다.

가해 학생은 벌罚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눈물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상처도 덧나지 않기만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학교 폭력이 극복되지 않는 것은 숨기는 데 급급해 적극 대처하지 않는 학교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하소연이다. 〈끝〉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 책 사면 학점 주겠다”

마광수 교수 발언 논란

마광수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교양수업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쓴 교재를 사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 않겠다고 강의계획서에 공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연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세연넷’ 등에 따르면 마 교수는 올해 1학기에 개설된 교양수업 ‘문화과 성’ 강의계획서에 “별것도 아닌 인생이”, ‘문화과 성’ 책 2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붙일 것. 안붙이면 리포트가 무효”라고 썼다.

언급된 책은 마 교수의 저서다. 이같은 지침에 대해 학생들은 “사실상 강매”라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줄잇는 사과나무 심기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청사 앞길에서 열린 ‘1인 2그루 과일 나무심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사과나무 묘목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푸른길 학교’ 강사 등 모집

(사)푸른길(이사장 이근우)은 25일 ‘푸른길학교’의 강사와 학교 등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푸른길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3주 차례로 진행될 ‘푸른길학교’는 각 구간별 특성에 맞게 푸른길과 도시·마을·시장·생태·공공예술 등을 주제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푸른길공원’은 광주역~동성중까지 8km에 이르는 폐선부지를 생태문화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 문의 062-514-2444 /이종행기자 golee@

남구 신청사 “상가 임대 힘드네”

음식점·미용실·병원 등 대부분 유찰…수의 창출 차질

부지 매입도 잘 안돼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려움

리모델링 한 건물에 입주한 뒤 내 달 8일 정식 개점하는 광주 남구가 신청사 내 임대 업체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24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개청을 앞둔 남구 청사 내 빙 공간에 음식점·미용실·약국·병원 등

들어서게 해 청사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임대 수익금을 확보하는 등 수의 창출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유찰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구는 애초 지하 6층·지상 9층(연면적 5만132.64㎡) 공간 중 ▲지하 1층 음식점·미용실·약국·병원 등

총 음식점, 미용실 ▲1층 커피숍, 약국, 뺨집, 은행 ▲지상 2층 병원·학원 ▲3층 상설비페 ▲4층 컨벤션 또는 오피스 등을 들어서게 할 구상을 세웠었다.

하지만, 현재 계약 체결이 이뤄진 곳은 지하 1층의 편의점과 분식점이 전부다. 나머지는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유찰됐다.

1층 커피숍(임대면적 478.49㎡)만

하더라도 보증금만 2억300여만원에

이르고 월 임대료 810만원과 관리비 217만원을 더하면 매월 1000만원의 고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유동 인구나 수요 등을 감안한 사업성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사 옆에 2층 규모 공용 주차장(688.8m², 35면)을 건설키로 하고 부지 매입을 진행해왔지만 여태껏 완료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개청 이후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민원인들의 주차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대출자 30% “학자금 대출”

평균 채무금액은 901만원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자 10명 중 3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송창용 연구위원은 직능원 한국교육 고용패널에서 전국 2년제 전문대 졸업자 135명과 4년제 대학 졸업자 807명 등 1842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30.3%(559명)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전체 평균 채무금액은 901만원이었다. 4년

제 대출자의 학자금 채무는 평균 1천81만원으로 2년제 전문대 졸업자(739만원)보다 많았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 기간은 45.5개월 이었다. 본인이 벗을 갚는다는 답변이 61.3%, 부모가 벗을 갚는다는 답변이 36.5%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의 취업률은 84.1%로 학자금 대출이 없는 졸업생(80.6%)보다 취업률이 3.5%포인트가 높았다.

/연합뉴스

한대련 “박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해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9기 준비 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대련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등록금 관련 예산은 불과 5천억원 늘어

났고 이미지도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닌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에 사용됐다”며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던 대선 공약을 거짓과 속임수 없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가 ~!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기기묘묘한 절경 장가계!

4월 01일 ~ 5월 17일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총 14회)

장기예약

* 특별: 삼겹살 무제한/오션전망/중중요리

* 특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CJPFP01-FMI]

장기예약/월 4일 / 5일 *호텔업그레이드

949,000원 ~

* 특별: 삼겹살 무제한/오션전망/중중요리

* 특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CJPFP01-FMD]

장기예약/월 4일 / 5일 *모드룸*

1,249,000원 ~

* 특별: 삼겹살 무제한/오션전망/중중요리

* 특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CJPFP01-OZG]

착한 특가 4일 / 5일 329,000원 ~

* 특별: 고지연, 배경수, 유희경, 허경수, 송미연

* 특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CCCPFP01-MUX]

상해/광주/소주 4일 / 5일 299,000원 ~

* 특별: 동화호, 대기권

* 특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거대한 자연, 맛있는 음식! 대만 여행

단하루!

5월 16일(목)
석가탄신일 3박 4일

단하루!

* 특별: 산수산, 물걸터민박호

* 특전: 아우 해양공원, 온천족, 101빌딩, NO TIP

[CTPF01-CI A]

대만 4일 이류/회원

999,000원 ~

* 특별: 산수산, 물걸터민박호, 대만족

* 특전: 아우 해양공원, 온천족, 101빌딩, NO TIP

[CTPF01-CI D]

대만 4일 이류/회원 *+ 드림

1,249,000원 ~

* 특별: 산수산, 물걸터민박호, 대만족

* 특전: 아우 해양공원, 온천족, 101빌딩, NO TIP

[CCC820]

여수·제주·상해 6일

750,000원 ~

* 특전: 동화호, 대기권

[크루즈 4박]

[여수·제주·상해·여수]

* 특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여수·제주·상해·여수]

</